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6년 수출의 주요 이슈 점검과 시사점

- 5가지 패러독스 직면 우려

- ① 세계 경제 회복의 역설
- ② 저유가의 역설
- ③ 원화 약세의 역설
- ④ 한일간 가격 경쟁력의 역설
- ⑤ 한중간 안행형 모델의 역설



목 차

■ 2016년 수출의 주요 이슈 점검과 시사점

- 5가지 패러독스 직면 우려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수출 경기 개요	1
2. 2016년 수출 전망과 주요 이슈	2
3. 시사점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이 준 협 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동 향 분 석 실 : 백 다 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6년 수출의 주요 이슈 점검과 시사점

- 5가지 패러독스 직면 우려

■ 최근 수출 경기 개요

한국의 2015년 수출은 1~11월 현재 -7.4%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에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으로 글로벌 교역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출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수출 부진은 곧 저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외 여건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핑계로 기업과 정부가 수출 회복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출 부문이 확실한 경기전환점을 구축하고 그 이후의 회복기조가 견고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2016년 수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점검해보고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2016년 수출 전망과 주요 이슈

(전망) 2016년 수출은 중국의 수출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로 반동할 전망이다. 2016년 한국 수출은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전년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연간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3.2%에서 하반기에 4.6%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가 전망된다.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무역수지	440	472	462	438	900	463	462	925
수출 (증감률)	5,596 (2.1)	5,727 (2.3)	2,686 (-5.2)	2,656 (-8.2)	5,342 (-6.7)	2,772 (3.2)	2,778 (4.6)	5,550 (3.9)
수입 (증감률)	5,156 (-0.8)	5,255 (1.9)	2,224 (-15.5)	2,218 (-15.4)	4,442 (-15.5)	2,308 (3.8)	2,316 (4.4)	4,624 (4.1)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주 : 2015년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이슈) 2016년 한국 수출경기 회복세 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걸림돌(다섯 가지 패러독스)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 경제 회복의 역설)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개선되나, 그 개선세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경기 회복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2016년 세계 경기는 선진국의 회복세와 신흥국의 둔화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2015년 58.2%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둘째, (저유가의 역설) 저유가에 따른 가격 하락은 해외 실질 구매력을 높여 수출 물량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될 수도 있으나, 대외 수요 절대 부족 현상으로 수출경기 회복에 큰 도움은 못 될 수도 있다. 2015년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2016년에도 배럴당 40~50달러대의 저유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 수요여건의 부진이 저유가의 구매력 증가 효과를 상쇄하고 있어 수출 물량 개선 효과는 제약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원화 약세의 역설) 주요 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쟁국 통화 약세도 동반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016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올해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로화, 엔화 등 경쟁국 통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의 수출 가격 경쟁력 개선은 과거와 달리 크지 않을 것이다.

넷째, (한·일간 가격 경쟁력의 역설) 한국이 일본 제품에 대해 가지는 전통적인 가격경쟁력이 엔저로 인해 일본 제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현상이 지속되면서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2012년 10월 이후 기준선 100p를 상회하며 원화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엔저로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한국과의 가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일본 대비 한국의 가격 우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섯째, (한·중간 안행형 모델의 역설) 중국산 제품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기술·고부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한·중간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 분업 질서인 '안행형(雁行型) 성장 모델 (flying geese model)'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는 2014년 기준 1.4년까지 축소되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기술 우위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제품은 고위 및 중위 기술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중국 고위기술 품목의 對한국 수입침투율은 2005년 11.1%에서 2013년 15.5%로 급증했다. 반면, 한국산 제품은 특히 고위 기술군에서 對중국 수입침투율이 동기간 10.1%에서 8.2%로 하락하며 경쟁 우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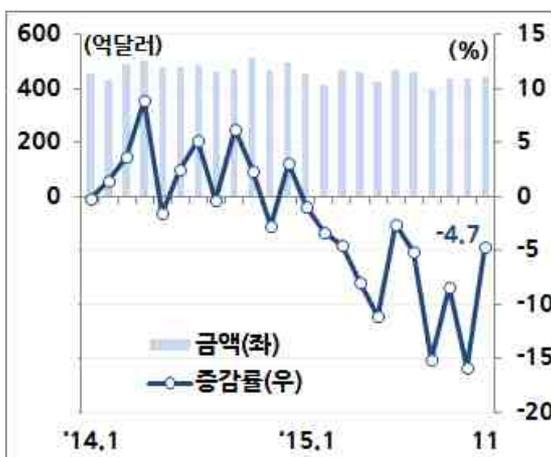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수출 경기를 확고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첫째**,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대외여건에 매몰되지 말고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 수출 경기를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디커플링에 대응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 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저유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환 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의 급변동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엔화 약세에 대응해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의 산업 재편 및 기술 추격에 대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1. 최근 수출경기 개요

○ (연구 배경) 2015년은 역대 5번째로 수출이 감소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며 무역 1조 달러 달성도 어려운 상황

- 최근 한국의 2015년 수출은 11월 -4.7%, 1~11월 -7.4%로 11개월 연속 감소
 - 1960년 이후 한국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해는 4개 연도로 1998년 외환위기(-2.8%), 2001년 IT 버블 붕괴(-1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3.9%), 2012년 유럽 재정위기(-1.3%)가 각각 해당
 -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중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역대 5번째 수출 감소 해로 기록될 전망이며, 무역 1조 달러 달성 또한 어려운 상황¹⁾
- 세계 경기 둔화로 글로벌 교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2015년 1~9월 세계 수출증감률은 -11.0%로 글로벌 교역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 글로벌 성장세 둔화, 유가 하락, 엔화 약세 등 대외 여건 악화가 현재 수출 감소의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수출 금액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15.11월은 잠정치.

< 세계 및 한국 수출증감률 비교²⁾ >



자료 : WTO.

1) 2015년 1~11월 현재 수출+수입은 8,860억 달러이며, 12월 수출입이 만약 전년도와 동일한 494억달러와 439억 달러를 기록한다고 해도 2015년 총 수출+수입은 9,794억 달러에 불과.

- (연구 목적) 이에 향후 수출 부문이 경기전환점을 구축하고 그 이후의 회복기조가 견고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2016년 수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점검해보고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봄

2. 2016년 수출 전망과 주요 이슈

(1) 2016년 수출 전망

- (전망) 2016년 수출은 중국의 수출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및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
 - 2016년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전년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 등의 요인이 한국 수출을 견인할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5년 3.1%에서 2016년 3.6%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세계 무역증가율은 2015년 3.2%에서 2016년 4.1%로 개선될 전망³⁾
 - 다만, 중국 수출 둔화, 엔화·유로화 약세 등은 수출 개선을 제약할 우려
 - 내수 중심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증가세 둔화,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등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을 제약
 -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對일본, 對EU 수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무역수지	440	472	462	438	900	463	462	925
수출 (증감률)	5,596 (2.1)	5,727 (2.3)	2,686 (-5.2)	2,656 (-8.2)	5,342 (-6.7)	2,772 (3.2)	2,778 (4.6)	5,550 (3.9)
수입 (증감률)	5,156 (-0.8)	5,255 (1.9)	2,224 (-15.5)	2,218 (-15.4)	4,442 (-15.5)	2,308 (3.8)	2,316 (4.4)	4,624 (4.1)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주 : 2015년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 2015년 1~9월 증가율은 주요 70개국(전세계 교역의 90% 차지)의 실적.

3) IMF, 2015년 10월 전망 참조.

(2) 2016년 주요 수출 이슈 : 5가지 패러독스 직면 우려

① 세계 경제 회복의 역설

○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개선되나, 그 개선세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경기 회복이 제약될 우려가 존재

- 2016년 세계 경기는 선진국의 회복세와 신흥국의 둔화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가 감소할 전망

· 2016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상승 추세를 보여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가 감소할 전망

· 신흥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위기 발생 우려,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 경기 둔화 등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은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제약할 우려

· 선진국 경기 회복세로 한국의 對선진국 수출은 미국 중심으로 회복 전망

· 그러나 한국의 신흥국 수출 의존도는 2015년 현재 58.2%로 총 수출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신흥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한국의 수출 회복을 제약할 우려

< 선진국 및 신흥국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주 : '15.10월 전망치.

< 한국의 선진국 및 신흥국 수출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선진국, 신흥국 분류는 IMF 기준.

② 저유가의 역설

○ 저유가에 따른 가격 하락은 해외 실질 구매력을 높여 수출 물량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될 수도 있으나, 대외 수요 절대 부족 현상으로 수출경기 회복에 큰 도움은 못 될 가능성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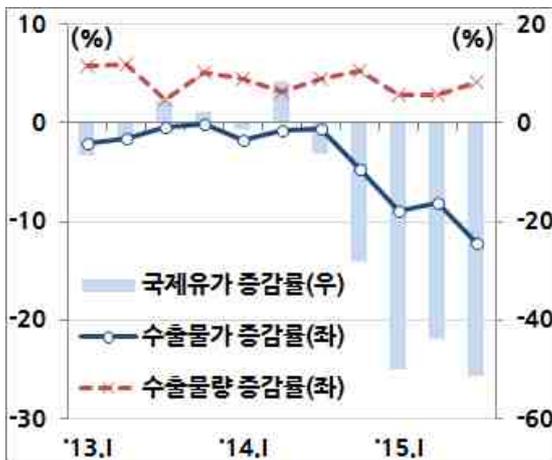
- 국제유가 등 원자재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가격 하락세가 지속

- 국제유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OPEC회원국의 원유 공급량 확대 등 공급 과잉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 수요 부진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40~50달러 선을 지속
- 저유가 등 원자재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

- 2016년에도 저유가가 지속되겠으나, 대외 수요여건의 부진이 저유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있어 수출 물량 개선 효과는 제약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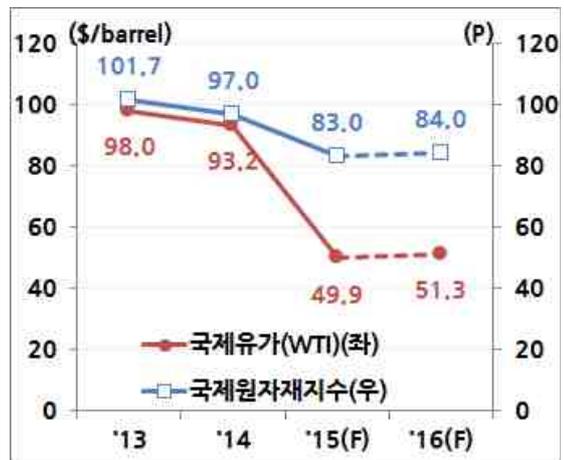
- 통상적으로 유가 하락 시 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 하락, 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 등 구매력이 상승하여 소비 및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유가 하락 후 수출 물가가 -30% 이상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개선세가 미약한데, 이는 세계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
- 이처럼 세계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저유가가 지속되어도 수출 물량 개선 효과는 제약될 것으로 판단

< 국제유가 및 수출 물가·물량 증감률 >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주 : 국제유가는 3개 유종 평균.

< 국제유가 및 원자재지수 전망 >



자료 : EIA('15.11), World Bank('15.10).
주 : 국제원자재지수(2010년=100)는 원유제외.

③ 원화 약세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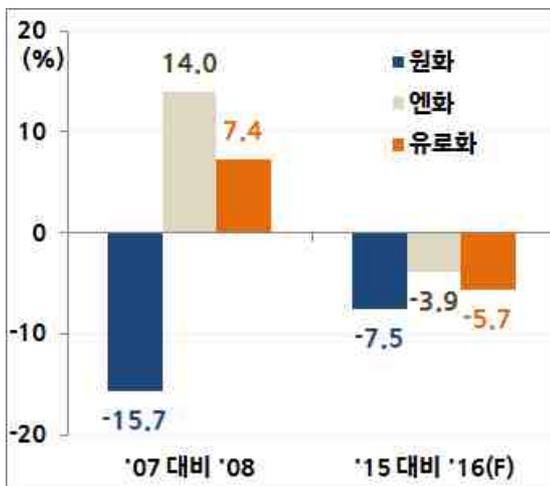
- 주요 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쟁국 통화 약세도 동반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
- 주요 기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16년 원/달러 환율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유로존 및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등 글로벌 통화정책 디커플링 진행 예상
 - 이에 따라 주요 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보다 상승하며 지난 2008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유로화, 엔화 등 경쟁국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의 수출 가격 경쟁력 개선은 과거만큼 크지 않을 전망
 - 2008년 원/달러는 전년대비 -15.7% 절하된 반면, 엔/달러 및 달러/유로는 각각 14.0%와 7.4% 절상되어 원화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경쟁국 대비 상승
 - 그러나 2016년에는 원화 뿐만 아니라 엔화와 유로화 모두 달러 대비 약세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시점 및 속도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환율 변동성 또한 수출 증가에 부정적일 전망

< 환율 전망 >

		'15 3Q	'15 4Q (F)	'16 1Q (F)	'16 2Q (F)
원/달러 (원)	평균	1,167	1,191	1,211	1,221
	최고	-	1,230	1,250	1,270
	최저	-	1,150	1,170	1,180
엔/달러 (엔)	평균	122	124	125	125
	최고	-	132	128	130
	최저	-	121	122	119
달러/유로 (달러)	평균	1.11	1.08	1.06	1.05
	최고	-	1.14	1.15	1.16
	최저	-	1.03	1.00	0.98

자료 : Bloomberg.
주 : 12개 투자은행 전망치 평균 ('15.11.24 기준).

< 달러 대비 주요 통화 가치 변화율 >



자료 : Bloomberg.
주 : 12개 투자은행 전망치 평균 ('15.11.24 기준).

④ 한·일간 가격 경쟁력의 역설

○ 한국이 일본 제품에 대해 가지는 전통적인 가격경쟁력이 엔저로 인해 일본 제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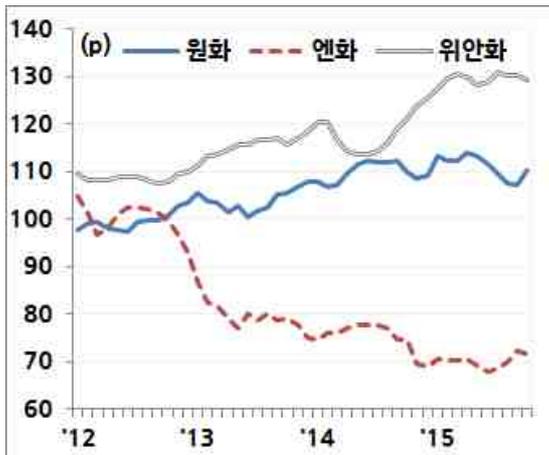
-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현상이 지속되면서 원화의 가격 경쟁력 약화

- 엔화 실질실효환율⁴⁾은 2015년 10월 71.5p로 2012년 10월 99.6p이후 기준선 100p을 하회하며 하락세를 지속
- 반면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0월 110.1p로 2012년 10월 100.5p 이후 기준선 100p를 상회하며 강세 기조를 지속

- 엔저로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하며 한국 제품과의 가격 차가 축소되면서 한국은 일본 대비 가격 우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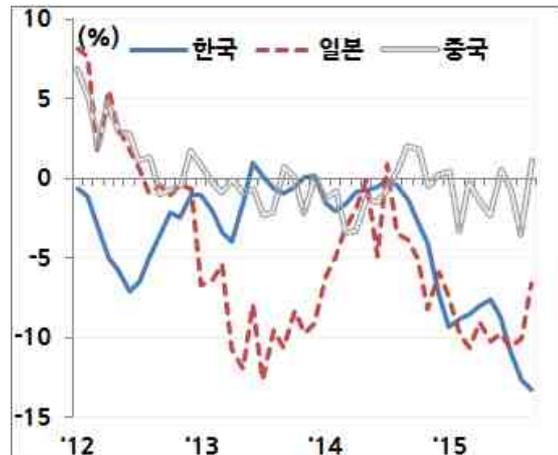
- 일본은 양적완화와 엔저 현상으로 수출 가격이 2013년 -9.2%, 2014년 -4.0%, 2015년 1~9월 -9.3% 하락하여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큰 폭으로 개선
- 한국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수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수출 가격 하락은 2012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국의 가격차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
- 중국은 저유가에 따른 비용 하락 압력에도 수출 가격 하락은 소폭에 그침

< 원·엔·위안 실질실효환율 >



자료 : BIS.
 주 : 1) 2010=100 기준.
 2) 100 이상이면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 대비 고평가되어있음을 의미.

< 한중일 수출 가격 증가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 재무성, 중국 해관총서 이용).
 주 : 한국 계약통화, 중국·일본 달러기준.

4) 실질실효환율은 각 교역상대국의 명목환율에 무역비중과 물가 수준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격 경쟁력을 명목환율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

⑤ 한·중간 이행형 모델의 역설

- 중국산 제품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기술·고부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한·중간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 분업 질서인 ‘안행형(雁行型) 성장 모델 (flying geese model)’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
-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14년까지 축소되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기술 우위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음
 - 국가 전략기술 전체로 볼 때, 2012년 대비 2014년 한국은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3.1년에서 2.8년으로 0.3년 단축시킴
 - 그러나, 동기간 중국은 한국과 기술격차를 1.9년에서 1.4년으로 0.5년 단축
 - 한국의 선진국 추격 속도보다 중국의 한국 추격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며, 중국은 향후에도 ‘제조업 2025’ 정책 등을 통해 기술력 확보 노력을 지속할 전망
-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제품은 고위 및 중위기술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
 - 기술수준별⁵⁾(고위기술, 중위기술, 저위기술 산업)로 살펴보면, 중국산 제품의 對한국 수입침투율은 고위 및 중위기술 중심으로 증가
 - 중국 고위기술 품목의 對한국 수입침투율은 2005년 11.1%에서 2013년 15.5%로 급증했으며, 중위기술 품목도 동기간 3.2%에서 4.1%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
 - 반면, 음식료품, 섬유 등 저위기술 품목은 동기간 7.4%에서 7.3%로 정체
- 반면, 한국산 제품의 對중국 수입침투율은 고위기술 품목 중심이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소멸
 - 한국 고위기술 품목의 對중국 수입침투율은 2005년 10.1%에서 2013년 8.2%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위 및 저위기술 품목도 2005년 각각 2.5%와 1.0%에서 2013년 각각 1.0%, 0.2%로 지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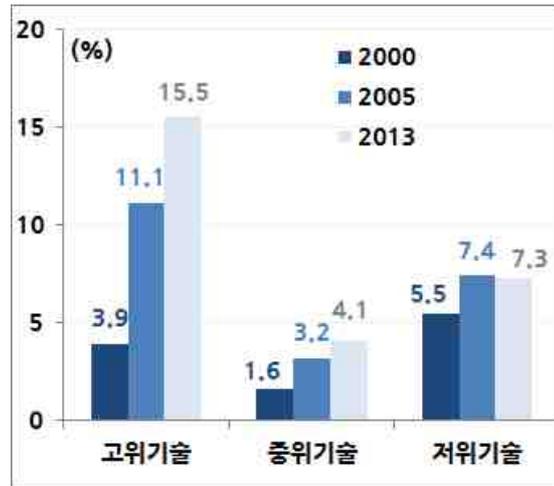
5) 본 보고서에서는 OECD의 기술수준별 산업구분을 토대로 중고위 기술산업과 중저위 기술산업을 합하여 중위 기술산업으로 분류해 진행함.

< 10대 분야별 한·중·일 기술격차 >

구분	對중국 기술격차(년)		對일본 기술격차(년)	
	'12년	'14년	'12년	'14년
전체기술수준	-1.9	-1.4	3.1	2.8
전자·정보·통신	-2.4	-1.8	1.3	1.2
의료	-1.9	-1.5	2.2	1.9
바이오	-2.5	-1.7	3.1	2.8
기계·제조·공정	-2.3	-1.7	2.7	2.5
에너지·자원·극한기술	-1.3	-0.9	3.3	2.9
항공·우주	4.5	4.3	5.4	4.5
환경·지구·해양	-2.9	-3.3	4.1	3.7
나노·소재	-1.2	-1.1	3.4	2.8
건설·교통	-2.8	-1.8	4.0	3.6
재난·재해·안전	-1.9	-1.6	4.2	4.2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주 : 2014년은 2012년 대비 기술격차.

< 기술수준별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수입침투율 추이 >6)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CEIC, KOSTAT, UN comtrade, 中國國家統計局 자료 이용).

3. 시사점

- 2016년 수출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전년도 침체에 대한 반등효과 등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의 전환이 예상되지만,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패러독스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첫째,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대외여건에 매몰되지 말고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 수출 경기를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2015년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유가 하락, 엔화 약세 등 대외 악재가 지속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남

6) 고위기술산업(컴퓨터장비, 전자산업, 음향 및 통신장비, 항공기 제조업), 중위기술산업(석유화학, 전기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광물성연료, 고무·플라스틱, 철강금속), 저위기술산업(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나무, 종이류).

7) 현대경제연구원(2015), '한중간 상호 수입침투율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15-15, 2015.04.10.

- 2016년 대외 환경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되며 한국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하방 리스크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및 산업계의 대외 수요 확보 노력이 필요

둘째,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디커플링에 대응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및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존에 체결한 한-미 및 한-EU FTA의 활용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경기 민감도가 낮은 품목의 발굴 및 홍보, 국가별 맞춤형 제품 수요 연구 등을 통해 신흥국의 경기 둔화에 대응할 필요
 - 특히,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성장 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 시장 수요에 맞는 소비재 수출 전략을 수립

셋째,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 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저유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기업들은 저유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제품 단가 하락에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유가와 매출액이 연동되는 산업은 저유가의 타격을 크게 받기 때문에, 유가의 반등을 막연히 기대하기 보다는 저유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재편, 생산성 제고, 기술력 확충 등의 대응책을 마련

넷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의 급변동을 방지해야 한다.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및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미세조정 등을 통해 원화 가치 급락을 방지

- 금리재정거래를 위한 달러화 유입이 이뤄질 경우 확대되는 단기 외채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유동성 관리 강화 등 단계별 조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신흥국 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상시 대응 체제 구축 필요

다섯째, 엔화 약세에 대응해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출 기업들에 대해 무역보험, 외환 리스크 관리 등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엔화 약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대출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을 강화
- 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재검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과 더불어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투자 확대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여섯째, 중국의 산업 재편 및 기술 추격에 대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 가속화로 해외 중간재 의존도 하락 지속이 예상되므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범용 중간재보다는 고부가·고기술훈간재 중심의 시장 공략이 필요
- 새로운 주력 산업 확보를 위해 현재 검토된 신성장 후보군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 검토를 통해, 우리가 선점효과를 가질 수 있고 상당 기간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시급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